

학제개편의 흐름에서 불어불문학의 자리매김과 교육적 과제

주 경 복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 머리말 : 불어불문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한다

복 잡한 역사적 배경과 국제환경 속에서 성립된 우리나라 대학편제에 따라 ‘불어불문학과’는 해방 직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50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 수와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80년대에 대학정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어불문학과와 설립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55개 학교에 60개 학과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¹⁾

‘불어불문학’은 엄밀히 따지면 일반 학문체계

의 좌표에서 고유하고 단일한 좌점을 갖는 학문단위가 아니라 선진외국문물의 학술적 수용을 위한 편의에서 ‘어학’과 ‘문학’을 함께 묶은 이른바 ‘외국 어문학’의 한 단위이다. 그런 점에서 불어불문학은 한편으로 일종의 외국학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프랑스학’의 성격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불어불문학은 인문학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인 ‘언어학’과 ‘문학’을 포괄하는 분야이다. 외국학으로서 불어불문학은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중어중문학 등 다른 외국관련영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불어교육과에서 전공하는 ‘불어교육’ 또는 프랑스학과에서 전공하는 ‘프랑스학’ 등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인문학으로서 불어불문

1) 1995년 현재 한국불어불문학회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다. 8개의 불어교육과, 1개의 프랑스학과, 1개의 전문대 외국어과, 7개 대학의 교양학부 불어영역, 또한 육군사관학교 구주어과 불어영역까지 합하면 프랑스 관련 교육 단위는 모두 71개가 된다.

학은 안으로 ‘언어학’과 ‘문학’의 관계와 더불어 밖으로 다른 학과의 언어학 또는 문학 영역들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학제개편을 지향하는 요즘의 흐름에서 불어불문학은 스스로 뚜렷한 정체성을 정립하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시급히 제시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전환기를 맞은 오늘날 불어불문학과는 상이한 지향점들이 엇갈리는 길목에 서 있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첨단문명을 추구하는 흐름에서 인문학 영역으로서 불어불문학은 자연과학의 첨단영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쟁력있는 분야들 뒤로 물러나 보조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학의 한 영역으로서 불어불문학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소모적 물질문명이 압도하는 현대의 왜곡된 흐름에서 인간정신의 회복을 위해 인문학의 여러 다른 영역들과 함께 불어불문학도 교양학문의 기능으로서 재편-보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종합적 관점에서 문과학문의 기초영역인 언어과학과 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불어불문학은 미시적 실용성보다 거시적 학문성의 기준에 따라 순수한 학문체계의 관점에서 올바른 좌표 위에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 학과의 정체성은 과거사와 관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규정될 수 없게 되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하루 빨리 고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분명해지면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진지한 자기규정 없이 아무렇게나 변화의 길을 밟을 수도 없다. 본연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들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또는 편의주의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주장되는 개편론은 오히려 한 나라의 교육제도에 치명적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면 불어불문학의 정체성은 어디

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고, 그에 맞는 진로는 어떠한 것이며, 주어진 목표에 걸맞은 실천방법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미력이나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실마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학제개편의 좌표와 불어불문학의 좌점

요즘 대학가에 몰아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은 ‘실용성’과 ‘경쟁력’이라는 풍향을 타고 있다. 이 때 말하는 실용성은 대개 인력수급이라는 잣대로 평가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쟁력은 다른 나라 대학들을 상대로 전제하며, 궁극적으로는 총체적 국가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한편, 각 대학 차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으로 이뤄지는 선의적 내부경쟁이 아니라 제살 깎기식 소모전을 일으키며 국내의 순위경쟁에 더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추진되는 학제개편의 흐름 속에는 적지 않은 혼돈의 징후가 보인다. 우물 안의 상대의식에서 비롯되는 조급함과 함께 옥석을 회오리 속에 뒤섞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개혁을 위해서는 거시적 좌표를 먼저 튼튼히 짜고, 그 위에서 각 영역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몫을 할당해야 한다.

1) 불어불문학의 위상

요즘은 좋은 싫든 첨단기술문명에 현실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어불문학은 먼저 인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자연과학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용성과 경쟁력의 잣대로 보거나 그 밖의 어떤 현실논리에서 보더라도 학제개편의 흐름

이 첨단 자연과학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자연과학의 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희생도 불가피하느냐 아니면 역량이 다소 분산되더라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조화시키면서 총체적 학문발전을 도모하느냐 하는 선택으로 귀착된다.

왜곡된 기술문명이 빚어내는 정신적 피폐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생각할 때 인문학의 필요를 부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것을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정신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가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고 국가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진정한 실용성을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인문학의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²⁾

따라서 인문학이 나아갈 바람직한 길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여 자아부정에 이르거나 열등의식을 거꾸로 과장하여 폐쇄성을 갖지 말고 긍정적 사고로 시대에 맞는 질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불어불문학의 발전방향은 두 가지로 정향(定向)될 수 있다. 하나는 외국학으로서 가장 실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학과 문학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여서 문과학문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2) 유사학과와 인접학과

외국학으로서 실용성을 추구하든, 순수 인문학으로서 학문성을 추구하든, 지금의 학제에서 불어불문학의 뚜렷한 정체성을 담보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학과 또는 인접학과들과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불어불문학과’는 우선 외국학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학’을 교육하는 곳으로서 기존의 ‘프랑스학과’ 및 ‘불어교육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의 목표로서든 수단으로서든 프랑스

어를 교육과정에 공유하는 학과들이다. 따라서 이들 학과간 통폐합이 거론된다. 또한 ‘외국학’으로서 인접분야인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등과의 통합을 비롯해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문학’으로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과 등과의 통합문제도 거론된다. 그리고 ‘인문학’으로서 철학, 심리학, 인류학, 사학 등과 하나의 계열로 통합하는 문제도 이야기된다.

그러면 먼저 대단위 계열통합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교육과정에서 계열단위들 사이에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연관성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제안한 것처럼 문과대 또는 인문대의 모든 학과를 한꺼번에 없애고 인문학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입학생을 뽑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학문적 성취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인문학 내부 각 영역들의 고유성을 심화하면서 그들 사이의 벽을 낮추거나 허물고 유기적 소통을 지향하는 교과과정은 유익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하나의 교육단위에 수용하여 일괄적으로 인문학 전체를 소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문들 사이의 벽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편의 위주로 각 영역의 전문성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학문 자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저학년에서 공통기초과목들을 이수케 하고 고학년에서 다시 전공을 세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통합의 의미가 상실되기도 하거나와 다음에서 보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한다.

둘째는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구조적 부작용의 문제이다. 인문학을 하나의 계열로 묶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면 이른바 ‘인기있는’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

2) 한 나라의 총체적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경쟁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가 생긴다. 이는 이미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는 일이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실용적 영역에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이 모여 사회적 필요에 부응한다는 논리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생각이다. 시장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인문계열 하위 영역들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중요도의 분포비율을 가령 '2:1:1:1:1'로 본다면 학생분포도 그렇게 돼야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비정상적 이합집산현상 때문에 예를 들자면 '9:1:1:1:1' 식으로 편중할 수 있다. 학교, 학과, 전공을 비롯해 모든 선택대상을 서열화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이는 학문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든지 세계화에 발맞춘 효율적 인재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든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서 대단위 계열별 편제는 그 속성상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제 소단위 계열별 통폐합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소단위 계열화에 변수로 작용하는 두 가지 기준은 '실용적' 전문화의 측면과 '학문적' 전문화의 측면이다.

먼저 순수한 학문의 측면에서 보자면 불어불문학은 '언어학'과 '문학'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어문학 계열의 언어학 또는 문학을 연계하여 계열로 묶어야 한다. 말하자면 모든 어문학과들을 '언어학과'와 '문학과'라는 두 개의 축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보자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의 국가별 언어별 많은 단위들을 두 개의 축으로 '헤쳐모여'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 그리고 문학이든 언어학이든 외국이론에 많이 의존하는 현실에서 각 영역의 외국어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통폐합부터 단행하면 더 큰 후유증에 발목을 잡힌다. 우선 교과목의 체

계와 운용을 효율화해서 학과 사이의 벽을 낮추면서 점차로 순수학문으로서 '언어학'이나 '문학'을 실용학문으로서의 '외국학'과 차별화하면서 별개의 학과로 묶어낸 뒤 인문학 전체를 학문분류에 따라 재편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불어불문학은 외국학으로서 세계무대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방향에서 재편될 수 있다. 외국을 지역별로 권역화하여 영미학과, 유럽학과, 동양학과, 중동학과 등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더 세분하여 언어권별로 영미학과, 프랑스학과, 독일학과, 중국학과 등으로 개편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별 분류방법이 갖는 장점은 현재 세분된 인문계학과를 적은 수의 단위로 통합하여 학과수와 학생수의 총규모를 줄이면서 세계의 지역별 연구를 특성화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대학과정에서 하나의 외국어도 실용성있게 제대로 훈련해 내기 힘든 실정에서 둘 이상의 언어를 익히며, 지역학에 필요한 잡다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외형상의 그럴싸함에 비해 방만해지는 교육내용 때문에 잡화점식 졸속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권별 분류방법에 따라 '프랑스학과'로 개편하는 경우의 장점은 기존 학과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육목표의 조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동요없이 조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운용되던 '불어불문학' 또는 '불어교육'의 교과체계의 틀에서 벗어나는 교육내용을 제한된 학점수와 교육연한 안에서 어떻게 실효성있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3) 바람직한 진로

학과 통폐합을 통한 학제개편은 많은 변수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할 수도 없다. 그러면 모

든 정황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불문학과의 진로를 제안해 보고 싶다.

순수 학문의 측면이나 실용 학문의 측면을 배타적 선택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조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으로서 학문적 전문성을 살리면서 외국학으로서 실용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다.³⁾ 이는 인문학을 실용성의 기준에만 맡길 수도 없고, 아울러 외국학의 실용적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을 함께 생각한 결과이다.

먼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위의 두 방향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특성화하거나 상대적 비중을 조정하는 선택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정부는 각 대학의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적정 분포로 균형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인문학의 학문적 전문성에 비중을 두어 질 높은 학문의 성취를 지향할 때 불어불문학은 '언어학' 또는 '문학'을 축으로 인접영역인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등과 유기적 소통체제를 마련하여 인문학 전체의 거시적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과과정의 입체적 편성을 통해 학과의 벽을 낮추어 교과목을 개방하고 교수진과 학생들의 교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통합적 학문단위로 이행하는 단계를 밟는다. 중간 단계에서 전국에 4~5개 정도의 '불어학과'와 '불문학과'를 운용해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외국학의 실용적 전문성에 비중을 두어 국제관계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지식과 응용력의 성취를 지향할 때 '불어불문학'은 '프랑스학'으로 전환하여 프랑스의 언어, 문학, 예술, 역사,

지리, 풍속, 사회, 경제, 무역, 정치, 외교, 군사, 법제도, 행정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 내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수진과 학습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영미학', '독일학', '중국학', '일본학' 등과의 지역학적 또는 외국학적 연계가 이루어져 필요에 따라 일정 부분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지역학' 또는 '외국학'의 포괄적 교육단위 학과로 조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논의에서 언제나 함께 생각할 문제는 사범대 불어교육과에 관한 것이다. 사범대를 폐지하거나 문과대 또는 인문대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대학교육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문제가 더 깊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먼저 불어교육과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고등학교 불어교육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불어교사의 수요가 격감하는 데 따른 인력적체의 해소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외국어교육을 영어에만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이른바 '제2외국어' 교육의 거시적 목표를 생각해 볼 때 성급히 제기되는 사범대 폐지론은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화'를 '미국화'로 착각하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속국으로서 우물 안에 가두어 오히려 거시적 경쟁력을 제한해 버리고 만다.⁴⁾ 통일시대를 맞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세계화전략은 특정 강대국의 위성국화가 아니라 자주적 경쟁력을 갖추는 입체적 세계화여야 한다는 논리에서 볼 때 제2외국어는 사멸의 대상이 아니라 튼튼한 국어교육을

3)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4) 물론 모든 외국어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는 없다. 국제적 현실에 맞는 합리적 비율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은 물론 신흥공업국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통일시대의 외교,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국제관계는 필연적으로 다변화되어야 한다.

바탕으로 합리적이되 지나치지 않은 영어교육과 함께 적절한 수준에서 올바르게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불어교육과를 불어불문학과에 통합하자는 주장의 다른 근거는 두 학과의 교육내용이 비슷하여 중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학과의 교육목표가 다른 만큼 그에 맞게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통폐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교수하고 고교 불어교사를 양성한 뒤 재교육까지 담당해야 하는 불어교육과는 그 기능을 더욱 전문화하고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범대 불어교육과의 수와 규모를 고등학교 불어교육의 이상적 적정량에 맞추어 기능별 지역별 안배와 조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일괄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외국어교육 전공단위들의 명칭이나 상위 소속단위의 재분류 등은 대학편제 전체의 틀과 맞물린 별도의 문제라고 본다.

3. 교육내용과 개선방향

불어불문학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은 앞에서 살펴 본 지향점들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어떤 한 가지 선택을 전제하기 보다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 모두를 염두에 두면서 교과목 체계와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당면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교육목표

불어불문학의 교육목표는 영역, 관점, 시각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흐름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정

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프랑스를 주대상으로 관련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인문학의 토대로서 '언어학'과 '문학'의 전문지식을 심화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학술연구와 실생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와 프랑스문화권 전반에 관한 종합적 지식을 깊고 폭넓게 학습하여 세계무대에서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그를 통해 국가이익은 물론 나아가 인류의 공영에 봉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2) 교과목 체계

주어진 교육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목 체계가 짜여져야 한다. 그런데 불어불문학의 교육목표는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과과정도 그에 따라 다른 성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의 교과목들에 대한 초점이 달라진다.

- ① 프랑스어 습득을 위한 기초과목
 - ② 프랑스 문학의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 ③ 프랑스 언어학의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 ④ 프랑스에 대한 종합적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 ⑤ 프랑스어 교육방법 학습을 위한 전문과목
- 과거에 불어불문학과는 주로 ①과 ②의 범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최근에 ③의 범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단계를 밟았다. 그리고 ④의 범주는 아직 희소한 상태이다. ⑤의 범주는 주로 사범대 불어교육과에서 필요하다. 1988년 무렵 국내 대학의 불어불문학과 가운데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여덟 곳을 표본으로 조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뒤의 <표 1>과 같다.⁵⁾

5) 서정철 외, 1988, 14쪽; 김치수, 1989, 122쪽.

(표 1) 8개 대학 불어불문학과 교과목 일람표(1988년 기준)

교과목 \ 대학 학년 - 학기	A 대	B 대	C 대	D 대	E 대	F 대	G 대	H 대
불문법	*1-1	*2-1	*2-1 *2-2	*2-2	*2-2	*1-2 *2-1	*2-1 *2-2	*2-1
불산문강독	1-2	*3-1	*2-1 2-2		*1-2			*1-1
기초불어		*1-1 *1-2	*1-1/2 *2-1/2		*2-1			
불어연습		1-1 1-2		2-2			*1-1 *1-2	*1-1 *1-2
시청각불어					*1-1 *1-2			
불어음성학	*3-2			*2-1		*1-1		
불어작문	*2-1	*2-2	3-1 3-2	3-1 3-2	2-1 2-2	2-2 3-2		2-2
불문학개론	*2-1 *2-2	*2-1			3-1 4-1		*3-1 *3-2	*1-1 *1-2
불어학개론	*2-2	*3-2	4-1			2-2	3-2	3-1 3-2
불문학사		*2-2	3-2	2-1	*2-1 *2-2	*2-1	*2-2	
불어학사					3-2 4-2	*3-2		4-2
실용불어	2-2		4-2					
시사불어	2-1 2-2		4-1	4-2		3-2		3-1 3-2
불단편강독		2-1	2-1 2-2	3-1	2-1 2-2	2-2	2-2	2-1
불소설강독		2-2					2-1	1-2
불어회화		2-1 2-2		3-1 3-2		2-1 3-1	*1-1 *1-2	
불회극강독					2-2			
불어통사론	*4-1			*3-2	3-2 4-2	*2-2	3-1	
19세기불문학		3-1 3-2	*4-2			*2-2		
고급불문법	3-2	4-1	3-1 3-2	4-1	3-1/2 4-1/2	3-1		3-1 3-2
18세기불문학	*3-1	4-1	*4-1		3-2 4-2	*3-2	4-2	
19세기불시	*3-1	3-2	3-2	*3-2	*3-1 *4-1	3-1	3-2	3-1 3-2
19세기불소설	*3-1		3-1	*3-1	*3-1/2 *4-1/2		3-1	3-1 3-2
17세기불문학	*4-1	2-2	4-1 4-2	*4-2		*4-1 4-2	4-2	4-1 4-2
20세기불소설	3-1		4-1 4-2	*4-1		4-1	4-1	4-1 4-2
19세기불회극							3-2	3-2
20세기불회극		3-1	4-2	3-1		3-1	3-1	
20세기불시		3-1	4-1	*4-2		3-2		4-1
근대불평론	4-1		3-1					
현대불평론	4-2	4-2	3-2	4-1		4-1	4-2	4-2
불의미론	4-2							
불문학연습							4-1	2-2
불어학연습		4-1	*3-1 *3-2			4-2		4-1
불작가론	3-2	3-2	4-2				4-1	
불어학특강	4-2	4-2				4-1		4-2
불문체론				4-2		4-1		
불수필				4-1				
20세기불문학	4-1		3-1			3-1		2-2
불시특강	4-1					4-1		
불문학특강				3-2				
불어음운론					3-1			
중급불어연습								*2-1
고급불어연습								*2-2
근대불문학강독								2-1
불문화사							2-2	2-1

*표시는 필수과목을 뜻함.

이들 8개 대학 외의 다른 대학 불어불문학과에서도 비슷한 과목들을 운용했으며, 그 뒤로 조금씩 과목을 조정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 대학 불어불문학과 또는 프랑스

어 관련학과에 편성되었거나 개편에서 고려될 교과목들을 범주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범주별 교과목 분류표

과목 범주	교과목
① 기초(언어습득) 과목 langue française	불문법 (초급, 중급, 고급), 불작문 (초급, 중급, 고급), 불어연습, 불어발음실습, 시청각불어, 불어회화(초급, 중급, 고급), 기초불어, 중급불어, 고급불어, 실용불어, 시사불어, (불어통역), (불어번역)
② 불문학 과목 littérature française	불문학개론, 불문학사, 불소설, 불희곡, 불시, 불산문, 불비평, 불수필, 불단편, 불작가론, (불작품론), (불문학주제론), (중세불문학), 17세기불문학, 18세기불문학, 19세기불문학, 20세기불문학, 불문학연습, 불문학특강, (비교문학), (창작연구), (번역문학), (문학사회학), (문학심리학), (문학철학)
③ 불어학 과목 linguistique française	불어학개론, (불어학사), 불음성학, 불음운론, (불형태론), 불통사론, 불의미론, 불화용론, (불어휘론), 불문체론, 불기호학, 불어학연습, 불어학특강, (불어사),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인류언어학), (역사언어학), (문어언어학), (수리언어학), (언어철학), (응용언어학), (사전학), (통역이론), (번역학)
④ 기타(프랑스연구) 과목 études françaises	실무(경제)불어, 정치불어, 불문화연구, (프랑스역사), (프랑스지리), (프랑스풍속), (프랑스사회), (프랑스경제), (프랑스무역), (프랑스정치), (프랑스외교), (프랑스행정), (프랑스법), (프랑스군사), (프랑스예술), (프랑스시사), (유럽연합연구), (국제관계), (한불관계),
⑤ 불어교육 과목 enseignement du française	응용언어학, 불어학이론, 불어교수이론, 불어교재분석, 시청각교수법, (불어듣기교수법), (불어말하기교수법), (불어쓰기교수법), (불어읽기교수법), 불어교생실습, 불어학습평가, (의사소통이론), (프랑스문화이해), (프랑스사정연구), (프랑스특수어연구), (프랑스언어지리연구), (프랑스어권연구)

*괄호 속 항목은 세분 또는 예상 가능성을 나타냄.

위의 범주들 가운데 ①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든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과목들이다. 나머지 범주들은 각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초점을 달리할 수 있는 과목들이다. 어떤 경우든 각 범주들 사이의 학문적 또는 기능적 변별성과 함께 한 범주 안에서 각 과목들 사이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설강해야 한다. 갑자기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 모형을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과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보다 기존 교과과정의 문제점들을⁶⁾ 먼저 살펴 보면서 과거의 시행착

오를 거울삼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보기도 하자.

첫째로 1학년에 교양과목 과다와 전공과목 과소 현상으로 전공기초의 체계적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교양을 분산배분하고 전공기초과목을 저학년에서 짜임새 있게 배정할 필요가 생긴다. 발음실습, 시청각, 회화, 문법, 작문 따위는 저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토대를 잘 닦아야 고학년에 전문영역의 지식을 소화하

6) 기존 교과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다른 자료(김치수, 1989, 122~124쪽)에 잘 정리돼 있으므로 여기서는 새롭게 강조하거나 덧붙일 사항만 언급하기로 한다. 국내 불어불문학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교과체계는 몇 가지 점들만 개선하면 국제적 차원에서도 손색없는 틀을 갖춘다.

는 데 능력이 오른다. 외국어는 총학습량의 시기배분이 중요하다. 일반교양과목은 시기배분보다 총량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교양교육이 대중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의 사정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교양과목의 학생수를 전공과목 수준에 가깝게 최대 50명 그리고 가급적 30명 이내로 줄여서 실질적 학습을 실천하면서 저학년에 전공기초과목을 집중배정하고, 고학년에 교양과목을 다발적으로 분산개설하여 학생들의 지적 욕구에 따라 수강시기의 폭넓은 선택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설강과목의 선정에 과학성이 없거나 각 학년 사이에 교과내용의 연계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의 <표 2>에서 분류된 범주에 대한 비중을 사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배분하여 운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각 과목들의 개설이 학교나 학과의 비학문적 변수에 따라 임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과목들 사이에 순차적 단계가 체계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교육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수과목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어도 각 범주의 과목들 사이에 총론과 각론 그리고 난이도의 순차성에 따른 연계를 고려해 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전공선택과목의 수가 부족하다. 앞의 <표 2>에 나열된 과목들 가운데 아직 설강되지 않은 과목이 많고, <표 1>에 나타난 과목 가운데서도 학교에 따라 설강과목에서 빠진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배당된 학점수도⁷⁾ 적을 뿐만 아니라 선택할 대상과목들도 매우 제한되어서 불어학, 불문학, 프랑스학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각 범주의 여러 교과목들에 대한

다양한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저학년에서 전공의 기초과목과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고학년에는 세분된 전공과목들을 깊고 폭넓게 학습하도록 가능한 많은 전공과목들을 골고루 설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설강과목의 수는 곧 재정지출액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학과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학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넷째로 교과목 범주들에 대한 과학적 배분 원칙이 결여될 때가 많다. 문학과 언어학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을 지향할 경우에는 ②와 ③, 외국학으로서 프랑스학의 실용적 전문성을 지향할 경우에는 ④의 범주를 강화해야 한다. 사범대 불어교육과에서는 ⑤의 범주에 속하는 과목들을 심도있게 개발하고 확대하여 실제로 고등 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에 필요한 효과적 방법과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대학의 프랑스어 교육에도 유익한 교수법을 제공하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각 범주들 사이의 비중 배분과 각 범주 안에서 단계적 배분에 치밀한 계획이 따라야 하고 영역간 상보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로 모든 범주의 과목들이 원론적으로 세분된 뒤에 교수진의 구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특정 교수의 연구성과나 각 학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별 강좌 등의 개설이 저조하다. 특강과목 등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 작가나 이론가에 대한 강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는 주제에 대한 강좌 등을 운용하면서 대학원과 학부 그리고 인접학과 및 학교 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7) 1952년부터 졸업학점 160학점에 전공과 교양의 학점비율을 7:3으로 하다가 1973년부터 실시된 실험대학에서 140학점으로 하향조정되고 전공과 교양의 비율은 그대로 7:3으로 유지하면서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권장하는 한편 능력별 학점취득, 조기졸업제, 계절학기제 등이 도입되었다.

3) 교육환경

우리나라 교육의 성패는 학과체계나 교과과정의 편성 자체보다 그것의 운용이나 환경 그리고 교수, 학생, 행정당국이 교육을 인식하고 그에 임하는 자세 등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학교와 학과에 대한 맹목적 서열화풍조 때문에 입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뚜렷한 신념없이 점수와 서열에 맞춰 선택한 학과에서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기업체들도 세간의 서열화된 선호도를 인력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 정책과 교육행정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대학입학으로 사회적 입지가 거의 판가름나는 현실은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친다. 학업을 마치지도 않은 학생들을 졸업 전에 선발하는 기업체의 자세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⁸⁾ 학력 중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학제라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 기업체, 교육주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선할 문제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수의 질높은 연구와 강의준비 여건을 보완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이 수강하는 전공언어과목도 있고, 교양외국어에는 수강생이 100명을 넘는 과밀강의 사례도 있다. 강연식 대중강의로 외국어학습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교수충원을 통해 과목당 수강생 비율

을 줄여 나가고,⁹⁾ 책임강의 시간을 현재 9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점차 낮추며, 실질적 연구년 제도를 정착시키고, 외국학 관련 교수들의 현지왕래를 통한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5~6년 주기로 1년간의 현지연수와 2~3년 주기로 1~2개월 정도의 방학연수를 정례화하고, 수시 연구출장을 통해 자료수집과 현지교류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¹⁰⁾ 그래야 시대흐름에 맞는 교수법과 교수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학생 해외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대로 외국어교육에서 현지연수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 따라서 불어관계학과 학생들의 프랑스 연수는 적극 권장할 사항이다. 특히 요즘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해외 나들이를 흡수하여 학구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연수비용을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면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관련학회 및 해당학과 교수진의 입체적 공조체제로 프랑스 정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의 언어연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렴한 항공료 제공, 연수비용 융자와 장기분할상환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국과 상호교환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학생

- 8) 졸업 전에 입사, 연수, 인턴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기업체의 경쟁자세는 대학교육의 파행적 변수가 된다. 졸업학기 종강 뒤에 사원채용을 시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출신학교와 전공학과를 피상적으로 서열화하는 학벌중심기준이나 영어와 상식 등의 단순평가에 따른 선발보다 대학교육의 성취도를 반영하고 활용하는 선발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9) 일시에 대량충원하는 졸속인사보다는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속되는 효과적 인사가 필요하다. 대학평가에서도 장기발전계획과 실천과정을 입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10) 교수의 연구성과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단에는 '채찍' 또는 '회초리'와 '당근' 또는 '꿀엿'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사회적 동의를 얻어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후자이다. 그런데 요즘의 '개혁'은 때로 그 방향과 목표도 뚜렷하지 못할 때가 많을 뿐더러 방법론이 지나치게 전자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고통분담'은 '고통'의 당위성과 '분담'의 원칙이 뚜렷하고 결과가 생산적일 때 가치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은 '개혁적' 투자방안과 함께 교육주체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방법론을 결집해야 한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논리가 아니라 국가경제규모에 비한 교육부자의 열악함과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물이해와 '무신경'을 심각히 고려한 주장이다.

들의 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외국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해 우리나라 산업 현장 견학, 유적지 방문, 교양강좌, 희망자에 대한 우리말 연수 등을 제공하여 외국어학습능력 배양과 국가차원의 홍보는 물론 학술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초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재정, 항공, 외무, 교육, 문화, 산업, 금융 등의 지원과 기업 차원의 협조가 요구된다.

또 다른 개선과제는 교육시설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언어실습실의 과학화이다. 교양외국어까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실습실을 마련하고, 음향도서실을 비롯한 첨단 시청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어는 입체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므로 경쟁력 있는 언어학습전략은 시설투자를 동반해야 한다. 대부분의 강의를 책과 칠판과 분필로 진행하는 지금의 여건에서는 아무리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생명력 있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외국학 전공별 도서실 운영의 필요성이다. 외국서적은 값도 비싸고 이용자수도 제한적이며 국내 보유량이 희소한 실정에서 그나마 대도서관에만 소량씩 분산됨으로써 이용능률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학과별 또는 계열별 외국학 도서실을 마련해 언어별 분류체계를 운용하면서 학교간 연계성을 높여 지역별 교류는 물론 전국 단위의 교류체계도 지향해야 한다. 세계화에 걸맞은 외국자료 보유량을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고, 보유 도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4) 교수법

주어진 교육환경과 교과체계의 조건 속에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두려면 과학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교과범주에 따라 교수법의 성격이 달라지고, 주어진 범주 안에서도 과목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과목별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 일반론 몇 가지만 보기로 한다.

모든 범주의 강의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과 발전적 방법론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시의 적절한 강의를 운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암기 위주보다 이해와 응용의 능력을 함께 높이고 실제의 삶에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보람과 의욕을 고취하며 그를 통해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인성교육으로까지 이어내야 한다.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문지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 학생들의 학습열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학생들이 강의진행에 참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교수가 주도하는 시간과, 학생이 주도하고 교수 또는 보조원이 지도-조언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프로그램의 조직과 보조원의 활용이 필요하다.¹¹⁾

언어습득을 위한 기초과목들의 경우에는 발음, 회화, 문법, 작문을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추며 그 밖의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적절히 추가해야 한다. 듣기와 말하기는 시청각시설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료와 기자재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학습단위당 학생수는 분반 등의 방법으로 20명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프랑스를 모국어로 말하는 외국인 강의자 또는 보조원을 활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11) 전공별 조교진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교의 보수지급에 따른 재정확보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과도기에는 학부의 우수한 고학년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 가운데 자원자를 확보하고 특별시간강사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를 위해서는 교수법과 언어학을 전공한 수준있는 외국인 교수 및 강사를 적절히 충원해야 한다.

불문학 과목들의 경우, 고전적 분류법에 따라 나뉜 장르별·시대별 과목에서 기존의 작품이나 작가를 다루는 것은 물론 창작이나 번역문학 또는 비교문학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불어학 과목의 경우에 현대 언어학의 '과학적' 특성 때문에 과목들간의 순차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각 단계에서 치밀한 교재구성과 강의전략이 요구된다. 자칫 난해하고 '딱딱해'지기 쉬운 내용이 많아서 학생들의 관심과 성취감을 높이는 교수법의 개발과 활용이 절실하다.

프랑스학의 범주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실험이 요구된다. 다양한 학문영역의 내용을 나누고 묶어 내야 하기 때문에 교수진의 확보가 가장 큰 과제이고, 다음은 과목들간의 상호연계성을 지키면서도 고유한 개별목표를 달성하는 운용방법의 개발이다.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불어교육전공 관련 과목의 경우에는 배움의 성취도와 가르치는 능력을 함께 높이는 방법들이 동원된다.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들은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에 대한 실력을 충분히 닦고, 가르칠 입장에서 불어학습지도를 위한 교수법을 효율적으로 터득하고 실습해야 한다.

4. 맺음말

개혁은 개선의 개념을 내포한다. '개악'도 발전과정이라는 논리의 '뜯어 바꾸기 지상주의'

또는 허례적 실적위주 개혁은 경계되어야 한다. 주어진 현실에서 불어불문학이 나아갈 실현가능한 최선의 발전방향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학과개편의 논의구도와 관련해 대단위 계열 통폐합은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단위 계열의 유사학과 및 인접학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과운용과 단계적 교류와 이행을 지향하면서 외국학으로서 실용성 창조와 인문학으로서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원하는 학교에서 '프랑스학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랑스학, 불어학, 불문학, 불어교육 사이의 적정한 비중 배분에 따른 각 학교, 각 학과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해 나간다. 학교와 정부는 특성화된 학과의 내실화 지원에 힘쓰면서 단계적 장기발전모형을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¹²⁾

한 나라 외국어교육의 결실은 초·중·고 교육의 연계 속에서 실현된다. 초등단위에서는 외국어 조기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민족주체성을 살리며 상위단위를 향해 언어적응력을 높이는 국어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중등교육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외국어 학습 과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점수변별을 위한 기호체계가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산 언어로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균형있는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 제2외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동적 국제관계에서는 영어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관계와 교류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외국어의 구사능력과 다양한 언어권의 사정에 밝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어와 다른 외국어의 비중은 각각 3:2 또는 2:1 정도의 양적 비율로 조화되어야 한다. 그를 위

12) 시국의 풍향에 따라 급조되는 개혁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적어도 10년 앞의 내다볼 수 있는 장·단기 발전계획과 투명한 지표에 따라 국력의 낭비없이 가장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해서는 고교교육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학입시에 제2외국어를 포함하는 방안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영어조기교육'에 할당될 비용은 중등 이상, 특히 대학의 외국어교육을 전문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돌려져야 한다. 사회진출을 눈앞에 둔 대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이 더 시급하다. 현장투입에 가까운 단계부터 내실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문과학문의 기초영역이자 첨단영역인 언어과학을 중심으로 문학, 철학, 사학, 심리학 등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정신문화수준 향상에 적극 활용하는 교육-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불어불문학은 현재 역량의 일정 부분을 실용적 외국학으로서 프랑스학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은 순수 인문학으로 정예화하면서 언어과학과 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가차원의 정신문화교육으로 연장하고 세계의 학문발전에 이바지할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정향된 목표에 따라 최적의 교과과정을 수립하는 한편, 짜여진 교과목들을 내실있게 제대로 활용할 교수법을 치밀하고 꾸준하게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프랑스학, 불어학, 불문학, 불어교육의 특성화가 심도 있게 반영되고, 그를 통해 각 영역마다 실용적 또는 학문적 전문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김치수, 1989, "불어불문학과와 현황과 개선방안", 『대학교육』, 제38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은수, 1980, "프랑스 각급학교의 문학교육", 『불어불문학 연구』, 제15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1993, "외국어교육소개: 프랑스의 모국어교육",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서정철 외, 1988, 『불어불문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보고 88-11-7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한업, 1994, "사범대 불어교육과 위기와 불어교수법", 『프랑스어문교육』, 2집, 프랑스어문교육학회.
 ———, 1995, "가르치기 위해 불어를 배운다는 것은...?", 『프랑스어문교육』, 3집.
 정소성, 1985, "불어불문학과와 당면과제", 『대학교육』, 제1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상헌, 1990, "불어 교육/학습 목표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제25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1992, "불어 교육/학습에서 제시순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수논총』, 제7집 2호.

주경복/파리 5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한국외대·중앙대·서울대 등의 강사를 거쳐 현재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프랑스 말·글짓기』 등이 있고, "거시적 언어과학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조개념의 인식과 문제론 - 소쉬르, 레비 스트로스, 라캉, 알튀세르 이론에 교차하는 인식론적 흐름을 중심으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